

교문위, 취소 위기 몰린 세계수영대회 국비 확보 급선무

국회 상임위별 챙겨야 할 광주·전남 현안사업

장병완 산자위원장 맡아 車100만대 조성 등 청신호 전남 3명 농해수위에 배정...농수산 관련 사업 탄력

20대 국회가 13일 개원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됐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법안 발의 등에 나서서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무엇보다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과 경제기반 탓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 등의 노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현안 중 국회 교문위와 관련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첨단실감콘텐츠제

작 클러스터 조성,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조성 및 관광자원화, 시내면세점 유치 등 국비 지원이 이뤄져할 광주지역 현안 사업들이 즐비해 있다. 여기에 지난해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와 관련한 각종 국비 지원도 절실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제수영연맹(FINA)이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가 약하다며 최근에 대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서신까지 보내오며 따라올해 상반기까지 수영대회 시설 기본계획 문제부 승인과 내년도 국비 지원 등은 꼭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교문위에는 초선인 송기석(광주 서구

갑) 의원이 배정됐으며, 간사를 맡아 활동이 기대된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및 삼성전자 전장부품 사업 유치, 남구 도시첨단 지방산단 조성, 에너지밸리 조성 특별법 제정 등 광주 경제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대부분은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산통위는 위원장으로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배지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들이 풀어야 할 주요 현안들로 꼽히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이 배정돼 초

과 에너지와 연계한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 등을 해야하는 중책을 맡았다.

안전행정부의회의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수년째 풀지 못하고 있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사업과 광주 첨단경찰서 신설 문제 등의 현안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6선인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방위에 배정돼 19대 국회 막바지에 첫 사업의 단추를 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밖에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주선(광주 동남을)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4선인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다만, 야 3당이 공조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 제정 및 제창과 5·18 역사 왜곡 등을 처

별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을 다룰 정무위원회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배정되지 않아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현안 사업으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기반 구축, 목포~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광주~대구 간 내륙철도 등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사업이 76건으로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았던 주승용(여수 을) 의원이 배정됐다.

농도(農道)면서 바다와 섬을 낀 만큼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국민의당 황주홍·정인화 의원과 전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더민주 소속의 이개호 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 3명이 배정됐다. 이들 3명의 의원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섬 여행객 여객선 운임지원,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냉동냉장 창고 건립, 수산식품 수출

단지 조성, 기후변화 대비 농업용 저수지 물그릇 키우기 사업,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등 농수축산업과 관련한 현안 사업들을 풀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의 미래 먹거리사업인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 개발사업과 바이오화학 기반 복합소재 부품산업 육성 등은 산업통상부와 관련한 사업들도 제20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산통위에는 국민의당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이 배정됐다.

국회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목포) 의원은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등 굵직한 상임위에 배정되면서 박 원내대표의 20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 활동도 주목된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기획재정위에 배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다시 불붙은 개헌론

정세균 의장 국회개원 연설 "주춧돌 놓겠다"

여야 중진 세미나·대선주자 잇단 공개 제기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입법부 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13일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혀,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개헌은 결코 가볍게 깨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20대 국회는 갈등과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의 지향점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제시했다.

그동안 '시기상조'라는 정치권의 암묵적인 동의 속에서 휴화산처럼 잠복했던 개헌론이 20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공론

화되면서 그 가능성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일단 개헌론은 불꽃이 타진 상황이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데다 국회에서 여야 중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세미나까지 열렸다.

특히, 여권에서는 그동안 청와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를 경계했으나 최근 남경필 경지지사 등 차기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모습이다.

또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개헌 당위성을 거듭 설파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의장의 언급으로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의 '첫단추' 격인 공론화 시기와 의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조차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어 논의의 향배가 어디로 흐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여소야대 3당 체제, 대선 정국과 맞물려 개헌 논의는 모든 정치적 현안을 뺀아들일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마친 뒤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3당 대표와 회동 정례화"

국회 개원 연설...이달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정부도 국회의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향후 대 국회 관계설정을 소통과 협력에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등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선 여소야대 구도인 20대 국회의와의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다"며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관련,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재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



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남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원연설에서 국민·경제·국회 순으로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국민 34회, 경제 29회(창조경제·세계경제 등 포함), 국회 24회 등을 각각 언급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규제(12회), 일자리(11회), 구조조정(11회) 등을 각각 강조했다. 또 미래(11회), 개혁(8회), 성장동력(3회) 등도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산강 삼백리, 살아나는 생명!

주요 프로그램

기념식 (10:30~11:10)

- 나주 영산포 등대 광장 야외 특설무대
- 환경 유공자 표창, 환경기자단 위촉, 기념사·축사 등

외래어종 저감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 (11:10~12:30)

- 나주 황포돛배 선착장
- 동자개 약 8천마리 방류

친환경 체험·홍보부스 운영 및 황포돛배 승선 체험 (09:30~12:30)

- 나주 황포돛배 선착장
- 친환경 비누 및 모기약 만들기, 큰입배스·블루길 요리 시식행사 등
- 황포돛배 무료 승선

영산강 생태사진 갤러리 운영 (10:00~12:30)

- 영산강의 생태·문화와 지역민의 삶을 담은 사진 전시

※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세계 환경의 날 맞이 영산강 환경사랑 띠여기 행사

- 일시 | 2016. 6. 15(수) 10:00~12:30
- 장소 | 나주 영산포 등대 광장 (황포돛배 선착장)

주최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 영산강살리기 네트워크(16개 NGO)